

불서출판도 '독립 815'

입문·개론서등 日 의존 벗고 독창성 확보

그 어느 분야보다 일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불교 출판계가 서서히 일본 불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본서적 번역출판이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학계와 출판계는 현재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적 성과 확보와 이를 통한 새로운 출판영역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번역서는 80년대 한국출판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했을 정도. 교계 출판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번역과 우리 출판시장에 나온 일본 불교서적은 대략 5백 여종 정도로 대부분이 일본서적 번역출판이 가장 활발했던 85년부터, 94년까지 출간된 것이다.

특히 이들 번역서는 교리일반과 소송·대승불교 등 불교철학, 경전과 선 관련서 및 사상사 등이 주류를 이루어서 한국

불교의 근간이 일본에 밀려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중반까지 변변한 입문서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한국 불교학계와 출판계가 불교학이 가장 발달한 일본의 학문과 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불교의 무분별한 수용과 잦은 오역으로 일본 불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문헌비평적 연구방법론을 답습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생동감있는 우리 불교에 대한 해석을 방해하는 등 자체 저술활동과 출판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일본 불교서 총목록 간행회 부설기관인 출판관계조사연구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출판되는 일본의 불교관련 서적은 4백여종. 불교학관련 논문 저서가 일년에 2천5백권이 넘는다는 일본 불교출판연합회의 통계자료와 대비하면 얼마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양질의 출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다 세이잔의 <입제

80년대 日 불서 번역 30% 이상 시장 점유

95년 이후 4년간 35종 번역...급감세

록>, 스즈키 다이세츠의 <선의 진수>, 마스다니 후미오의 <근본불교> 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명저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책들을 대체할만한 한국 불교의 독자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일본의 학술적 연구와 출판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9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서적을 비롯한 외국서적의 번역출판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95년 3월을 기준으로 불교서적 총판 운운사가 펴낸 <1995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서적 번역서는 전체 불교출판서

적의 31.9%였으나, 98년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체 1천6백85종 중 1백64종인 9.7%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한국 불교의 학술서 출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서적 번역서는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95년 이후 4년간 출간된 일본서적 번역서는 모두 35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급격한 감소원인은 크게 세 가지. 번역과 내출 책의 거대 다나온 데다, 94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그 필요성과 상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국 불교학계가 자생적인 저술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학계와 출판계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번역서 감소현상을 호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일본서적 번역서 감소는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 출판계와 학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 운창화 사장은 "지금부터는 국내 필자의 발굴과 함께 기획출판을 통한 학술출판의 질적 향상, 학술서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영의 다각화로 한국 불교의 특성을 살린 출판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80년대에 한국 불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본 불서 번역서들.

새로운 책



▲초심자를 위한 재가불자 섭신 요집 = 불산스님(진주 토왕암 주지)이 펴냈으며 불자로서의 올바른 몸가짐과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 사찰예절에서부터 기초교리 등에 대한 의문을 막연히 사찰을 다니면서 한 두개씩 해소해 나가기보다는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교의 참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설·설화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등을 예로 들어 꾸미고 있는 것이 특징. (정우서적, 1만원)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 = 30년동안 재소자들을 위해 포교 활동을 벌여온 삼중스님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형수들의 편지를 모아 엮은 책. 매일매일 형장으로 떠나는 두려움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형수들의 회한과 절규를 담았다. 곡절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된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김진태씨와 삼중스님과 그의 인연은 진실한 삶과 종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사형수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 눈물겹다. (인화, 6천5백원)



▲인도에 두고 온 눈물 = 소설 <만다라>에 나오는 지산스님의 실존 모델인 퍼틀스님 현몽의 기상천외한 인도 기행 리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 보다는 더 나은 인도에 대한 자신의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의로움의 끝을 깨기 위해 인도를 유랑한다. 그래서 기행리기가 보다는 오히려 삶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역경치림 느껴진다. 가난과 범죄로 물들어 있으면서도 신비로움을 간직한 인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창해, 8천원)



▲누구세요 접니다 = 양의학과 한의학,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기와 선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중국인 의학 이종진씨와 내과 전문의 조양기씨가 함께 썼다. 자연과 나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기호를 분포와 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관계임을 밝히면서 '자연은 곧 나'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혈검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와 기를 이용한 경락 마사지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하남, 9천원)

"원효사상연구 현재진행형"

화쟁 회통사상과 입심 사상으로 요약되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시대와 민족,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며 오늘 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효연구원 '원효사상' 펴내

원효스님의 사상 연구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 설립된 원효연구원(이사장 이영무)이 펴낸 <원효사상>(신우당 판)은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원효의 서당설화(摺繪說話)에 대한 일고찰(이영무)' '원효대사의 신심과 발심관(오형근)' '고려에서 원효의 추앙과 종파별 변용(허홍식)' '원효의 정토사상(김훈)' '원효와 신라중대 왕실의 관계(남종신)' 등 모두 6편의 논문과 원효의 저술개관을 부록으로 실었다. 특히 '서당'이 당시 군사제급이라는 '군관설'과 원효스님이 태어난 곳과의 연관성 때문에 붙여졌다는 종래의 학설 모두를 반박한 이영무 이사장의 논고나 원효스님에 대한 인도 논리학자 진내(陳那, 480~540)의 후신설을 살핀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의 논고는 관심을 끈다. 한명우 기자

"중국 불교조각은 회화적이다"

정예경씨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

정예경씨(동국대 강사)가 펴낸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해안 판)는 중국 조각양식의 전개과정을 중국조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불교조각을 통해 탐구한 책이다. 제1·2장 '복제 조각의 원류'는 복제의 조각을 대표하는 하북성 북방당산석굴의 보살상과 산서성 천룡산석굴의 여래좌상에 보이는 도티프(장신구)와 표현양식의 원류를 탐구하면서 조각 양식의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제·북주, 수(隋)의 조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했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3·4장에서 성도만분사지 율토 군상의 양식과 북방당산석굴의 나체형 보살상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성립된 3차원적인 조각은 남인도·동남아시아의 조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자라는 그 이유를 회화적이고 선적(線的)인 중국의 오랜 조각전통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외래요소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한글로 읽는 '팔천송 반야경'

해탈스님 '가장 오래된 반야경' 펴내

반야경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해탈스님(울산 월은사)이 펴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출판사대 판)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팔천송 반야경>의 현존 산스크리트본은 서기를 전후해 1세기 중엽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두 32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대한 문제를 제2장에서는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대해, 제3장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산천을 담은 사람들

문인 12명 화가 13명이 만난 자연

우리의 산천은 반만년을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 이 산천을 문인 12명과 화가 13명이 지난 1년간 누비며 글과 그림으로 담은 <산천을 담은 사람들>은 민족과 교락을 함께 한 '우리의 얼굴' 백두대간을 보여준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고은 신경림 고형렬 등의 문인과 김정현 임옥상 민정기 등의 화가들이 1대 1 짝을 이뤄 자신의 연구 산천을 찾아 각각 글과 그림 4~5점씩을 실었다. 불국토의 영원이 어린 경주 남산과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 백두산 정상에 오른 고은 시인이 민족혼을 일깨운다. (효형, 9천원)



그냥 갈 수 없는 길

진리향한 과정 그림그리듯 서술


"버둥처럼 절간을 찾아 북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마침내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다." 이도원 저서(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가 펴낸 <그냥 갈 수 없는 길>은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수행의 한걸음 한걸음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펼쳐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까닭없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세상에서 할 행복한 사람	나 무 불	민족사
3	책 읽는 법	정 태 혁	여시어문
4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통 효 립	
5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종출판사
6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립
7	성지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윤 순	신 우 당
8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걸의	예문서원
9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세요	김 종 서	여시어문
10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	윤원철의	시공사

귀인문의: (02)737-0695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나?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수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8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극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